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데킬라 사업 진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왼쪽)이 데킬라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살럿 호네츠의 구단주인 마이클 조던은 보스턴 셀틱스, LA 레이커스, 밀워키 벅스 구단주와 손을 잡고 프리미엄 데킬라 사업을 시작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황제’라는 칭호가 말해 주듯 NBA 최고 스타이다. 은퇴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최고의 농구선수로 꼽힌다. 브랜드 가치도 높아 ‘조던’ 브랜드 등의 농구 외 수익도 천문학적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조던의 재산은 19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NBA 구단인 살럿 호네츠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ESPN은 이날 “조던이 데킬라 라벨에 자신의 이름이나 사인을 넣으면, 맛이 어떤지 여부와는 별개로 몇 시간 안에 다 팔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던은 보스턴의 워 그라우즈벡 구단주, LA 레이커스의 지니 버스 구단주, 밀워키 벅스의 웨스 에텐스 구단주 등과 함께 데킬라를 즐겼고, 이 과정에서 사업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던은 병 디자인에 관여했다. 병은 5각형 모양이며 23도 기울어져 있다. 조던 자신의 현역 시절 등번호와 같은 숫자다. 조던은 고교시절을 거쳐 대학시절, NBA에서 은퇴할 때까지 줄곧 23번의 등번호를 유지하며 농구코트를 평정했다.

조던이 내놓은 데킬라는 7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다양하다.

스타들의 못 말리는 골프 사랑

골프라면 못 말리는 열정을 보이는 스타들이 있다. 그들은 비록 아마추어이지만 열정만큼은 프로에 뒤지지 않는다.

지난 2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할리우드 영화 배우이자 ‘골프광’으로도 유명한 빌 머레이(69)는 교통사고로 한 손을 못 쓰게 되었고 골프 연습에 나설 정도로 골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머레이는 지난 26일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 유러피언투어 알프레드던힐링 크스챔피언십(총상금 500만 달러) 대회 참가를 위해 세인트앤드루스를 찾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4중 추돌 사고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오른손에 붕대를 감아야 했다. 기권하는 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는 연습일에 대회장에 나타나 다친 손을 천으로 고정하고 왼손으로만 연습했다. 이 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경기하는 프로암 형식이다.

유러피언투어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그 어떤 것도

머레이가 골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미국프로농구(NBA) 현역 최고 선수로 꼽히는 스테판 커리(31·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유명한 ‘스타 아마추어 골퍼’다. 고등학교 때 골프팀에서 뛰었고 지금까지 골프와 인연을 맺고 있다. 지난해에는 PGA 투어 2부 대회에 정식 출전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내파에서 열린 PGA투어 세이프웨이클래식에도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려다 NBA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미국프로풋볼(NFL) 델러스 카우보이스의 쿼터백이자 현 CBS에서 NFL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토니 로모(39·미국의 골프 사랑도 남다르다. 그는 커리가 초청을 거절한 세이프웨이클래식에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했다. 대회 기간 중에 NFL 미네소타 바이킹스-시카고 베어스의 경기 중계가 있었음에도 대회 출전을 결정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메시, FIFA 올해의 선수 ... 역대 최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피르힐 판데이크(리버풀)를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우뚝 섰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시는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 2019’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로 나선 호날두와 판데이크를 제치고 ‘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1991년부터 시작된 ‘FIFA 올해의 선수’는 2010년부터 프랑스풋볼이 선정하는 발롱도르와 공동으로 시상하다가 2016년부터 분리됐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메시(5회)와 호날두(5회)가 시상식을 양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11년 만에 ‘메날두 시대’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메시는 올해 시상식에서 2018-2019 시즌을 가장 빛낸 선수로 뽑히면서 1년 만에 ‘메날두 시대’의 재림을 선언했다.

이로써 메시는 통산 6번째(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 ‘올해의 선수’로 뽑히면서 5차례 수상한 호날두(2008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를 따돌리고 역대 최다 수상자로 우뚝 섰다.

올해의 남자 감독상은 2018-2019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토트넘을 제치고 리버풀의 우승을 지도한 울리겐 클롭(독일) 감독이 차지했다.

또 2019 FIFA 여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미국 여자 대표팀의 질 엘리시(미국) 감독은 올해의 여자 감독상을 받았다.

‘FIFA-FIFro 월드 베스트 11’에는 호날두, 메시,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이상 공격수), 모드리치, 에텐 아자르(이상 레알 마드리드), 프렌키 더 용(바르셀로나·이상 미드필더), 마르셀루, 세르히오 라모스(이상 레알 마드리드), 판데이크, 마테이스 데리흐트(아약스·이상 수비수), 알리송(리버풀·골키퍼)이 선정됐다.

한편, FIFA 올해의 여자 선수에는 미국 축구 대표팀의 여자 월드컵 2연패를 이끈 메건 레피노(레인FC)에게 돌아갔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 감사대행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